

서·발문을 통해본 미확인 고문헌의 현황과 기존 고서목록의 수정·보완에 관한 소고*

The Current Status of the Unconfirmed Old Documents Seen through Prefaces and Epilogues and the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Korean Old Documents Bibliographies

姜 順 愛 (Kang, Soon-Ae)**

◁ 목 차 ▷

1. 서 론	3.2 사부 문헌
2. 서·발문을 통해본 미확인 고문헌의 현황	3.3 자부 문헌
3. 기존 고서목록의 수정·보완	3.4 집부 문헌
3.1 경부 문헌	4. 결 론
	<참고문헌>

< 초 록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은 고문헌의 영인 자료와 각 기관에 소장된 고문헌을 대상으로 서·발문을 추출하여 이에 대한 지식계보학적 연구자원의 구축을 목표로 1차 사업을 완성하여 3개의 결과물을 작성하였다. 2차 사업은 그동안 수집·정리한 1만여 건의 서발류 자료 중 1,450여 건을 선별하여, 3년간 원문의 교감과 표점, 해제 및 XML 마크업 작성을 하였다. 선별 기준은 현전본 미확인 고문헌에 붙인 서발류 자료를 우선적으로 추출해 냈고, 현전본 중에서 비교적 뚜렷하게 지적 계보를 보여주는 자료를 추가하였다. 『한국 미확인 고문헌 목록』에 포함된 고문헌은 3,800여종이다. 이중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정리된 자료중 미확인본으로 인지된 것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이들 자료가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않고, 문집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문헌에 합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문헌 중에서 일부는 현존본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 각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서목록의 서지사항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자료를 주제별로 보면, 경부 15종, 사부 58종, 자부 21종, 집부 76종이었다. 이중에서 고서목록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보면, 경부 15종·사부 15종·자부 6종·집부 7종이었다. 이들 자료를 통해 현전목록의 저작자와 편자, 저작자의 역할어, 편찬 및 간행경위, 판본, 빠져 있는 서문 등을 수정 보완할 수 있었다.

* 본 연구는 2012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장려금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이루어진 “2011년도 국학기초자료사업 학술대회”(2011. 12. 16)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체계화한 것임.

**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12년 7월 10일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9월 15일

이에 더하여 고서를 정확하게 검색하기 위해서는 고서목록의 서지주기의 보완이 매우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고문헌 서·발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기존목록을 수정 보완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다.

要語: 서·발문, 미확인 고문헌, 고서목록

<ABSTRACT>

Korea University Institute of Korean Culture has completed the first project, aimed to establish an information-genealogical research resource, with extracting the prefaces and epilogues from the photographic editions of the old documents and from the old documents in each institution. This project has produced three final reports. The second project was directed to correct and mark with a dot, annotate and markup XML format about the 1,450 texts out of 10,000 articles for three years. The selection criteria was picked out prefaces and epilogues of the unconfirmed ancient literature, added articles distinctly showing intellectual lineage 3,800 articles are included in the *The catalogue of the unconfirmed old documents in Korea*. Out of these articles, many old documents arranged in 2009-2010 were recognized as the unconfirmed books, because they were not published in one separate volume, but contained in the collection works and printed 2 or more different texts as one book. Among those articles, Some turned out to be the existent book and it could help modify and supplement comprehensively the existing bibliographies of old documents in each libraries. Looking at these old literature by subject, these were kyong-bu(經部) 15 kinds, Sa-bu(史部) 58 kinds, Ja-bu(子部) 21 kinds, Jip-bu(集部) 76 kinds. Among those kinds, by modifying and supplementing old document's bibliographies, these were kyong-bu(經部) 15 kinds, Sa-bu(史部) 15 kinds, Ja-bu(子部) 6 kinds, Jip-bu(集部) 7 kinds. It could found information such as the author and editor, the role of the author,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edition, missing prefaces, et cetera through these materials. Furthermore, it was pointed out that making up for a defect of the bibliographical note was very necessary in order to accurately search the Korean old documents. It allows a new recognition of the impotence of Korean ancient literature's prefaces and epilogues and facilitates the release and sharing of the results.

Key words: the prefaces and epilogues, unconfirmed ancient literature,
Korean old documents

1. 서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은 국학기초자료사업의 일환으로 1차 사업은 2006~7년 2년간 총 1,450종의 고문헌을 조사하여 고문헌에 붙인 서발류 자료 1만여건을 수집·정리하여 『한국 서발류 자료 총목록』¹⁾으로 엮었다. 또한 서발문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문헌의 현전 여부를 조사하여 현전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고문헌 4천여 종의 목록을 『한국 현전본 미확인 고문헌 목록』¹⁾으로 묶었다. 2008년도에는 삼국·고려시대에 편찬·간행된 고문헌에 붙인 서발류 자료 260건을 대상으로 원문의 교감 및 표점, 개요 및 해제 작성, XML마크업을 진행하여 『한국 고문헌의 지식 계보학적 연구자원 해제집(삼국·고려시대편)』을 작성하였다. 2차 사업은 그간 수집·정리한 1만여 건의 서발류 자료 중에서 1,450여 건을 선별하여, 3년간 원문의 교감과 표점, 해제 및 XML 마크업 작성을 하였다. 선별 기준은 현전본 미확인 고문헌에 붙인 서발류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별해 냈고, 현전본 중에서 비교적 뚜렷하게 지적 계보를 보여주는 자료를 추가하였다.

서발류 자료 1만여 건 중에서 현전본 미확인 고문헌에 붙인 서발류 자료는 경부 250건, 사부 1,200건, 자부 500건, 집부 1,800건 가량으로 총 3천 8백여 건이다. 이들 서발류 자료를 대상으로 매년 5백여 건을 선별하여 2009~2011년까지 3년간 총 1,450여 건에 대한 교감·표점·해제·XML마크업 작업을 사부분류에 따라 연차적으로 수행하여 『한국 현전본 미확인 고문헌 서발류 자료집』으로 출간하고, 기존의 연구 성과물인 『한국 서발류(序跋類) 자료 총목록』과 『한국 현전본 미확인 고문헌 목록』을 통합하여 『한국 고문헌의 지식 계보학적 연구자원』 DB를 구축하였다. 1차년도인 2009년에는 경부(經部)와 자부(子部)에 해당되는 미확인 고문헌에 붙인 서발류 자료 약 450건을 선별하여 원문을 입력·교감·표점하고 해제와 XML 마크업을 작성하였다. 2차년도인 2010년에는 사부(史部)와 집부(集部) 일부에 해당되는 미확인 고문헌에 붙인 서발류 자료 약 500건을 정리하여 표점

1) 이 자료의 원래 서명은 『한국 실전(失傳) 고문헌 목록』인데, “2011년도 국학기초자료사업 학술대회”(2011. 12. 16)에서 ‘실전(失傳)’ 의미가 모호하다하여 ‘미확인 고문헌’으로 정정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준하여 바꾼 것임.

하고 해제를 작성하였다. 3차년도인 2011년에는 미확인 고문헌에 붙인집부 자료 약 500건을 정리하여 표점하고 해제를 작성하였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고문헌의 목록 및 해제 작성 작업은 현전본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고문헌에 대한 조사와 목록 정리는 각 도서관별로 목록집 및 해제집을 작성하여 왔고, 근년에는 정부 주도로 종합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문헌은 문헌적 특수성과 역사·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지금까지 상당한 분량이 일실(逸失)되었으며, 현전본의 조사만으로 전근대 시기 서적의 편찬 및 출판 현황을 개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전본 미확인 고문헌에 붙인 서발류 자료를 통해 서적의 편찬 및 간행, 현전 여부와 이본 상황,²⁾ 유통과 수용의 경로를 추적하여 전적 문화의 풍부한 실상을 재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진 『한국 미확인 고문헌 서발류 자료집』에서 나타난 결과물에 의거하여, 우선 미확인 고문헌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 미확인 고문헌 중 현존본으로 파악된 것 중 기존목록과 대비하여 서지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사례들을 선별하여 경·사·자·집의 주제별로 나누어 세부사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고문헌 서·발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기존목록을 수정 보완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다.

2. 서·발문을 통해본 미확인 고문헌의 현황³⁾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확인 고문헌에 붙여

2) 강순애, “서·발문을 통해 본 고문헌의 현황과 한국서발류자료정보시스템 구축의 의의,” 『書誌學研究』 42집(2009), 75-104.

3) 서·발문을 통해본 미확인 고문헌의 현황은 “2011년도 국학기초자료사업 학술대회”(2011. 12. 16)에서 발표한 “김광년, 한국고문헌의 지식 계보학적 연구자원 구축 사업경과에 대하여” pp.10-13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여 이루어졌음을 밝혀 둔다.

서·발문을 통해본 미확인 고문헌의 현황과 기존 고서목록의 수정·보완에 관한 소고

진 서발류자료를 대상으로 2009년에는 경부와 자부의 450건, 2010년에는 사부와 집부 일부 500건, 2011년에는 집부 500건에 대한 가공과 해제 작업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9년에는 서발류 자료 1만여 건 중에서 각급 기관의 고서목록과의 대조를 통해 미확인 고문헌에 붙인 서발류는 경부 250건, 사부 500건 총 750건이었다. 이들 서발문의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 경부 109건, 자부 181건 가량의 현존본 자료를 추가로 찾아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확인 고문헌에 붙인 서발문 약 400건을 선별하였고, 지적계보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자료에서 50여건을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이들 자료중 경부에서는 예류의 자료가 가장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가례와 상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어 소학류, 역류, 사서류, 춘추류의 자료가 많았으며, 총경류, 서류, 시류, 효경류는 매우 적었다. 자부는 유가류가 가장 많았고, 예술류, 의가류, 병가, 도가, 농가류의 순으로 자료가 많았으며, 석가류, 술수류, 보록류, 정음류, 잡가류 등은 비교적 적었다. 시대별로는 경부와 자부 모두 18세기, 19세기 이후, 17세기 순으로 자료가 많았고, 15세기와 16세기의 자료는 거의 없었다.

다음은 2010년에는 사부와 집부 일부의 미확인 고문헌에 붙인 서발류는 총 500건이었다. 사부 자료 중에서는 전기류가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충신, 효자, 열부의 전기를 서술한 것이 많았다. 이어 지리류와 잡사류도 자료 비중이 비슷했는데, 지리류는 유람기록이 많고, 잡사류는 다양한 성격들의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총집류, 정법류, 초사류 등의 자료도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았고, 정사, 편년 등의 역사 자료는 비교적 적었다. 집부자료는 총집류와 별집류가 많아 한문학에 치중해온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시기별로는 18세기와 19세기와 압도적이고, 17시기가 다음이며, 15세기와 16세기는 비교적 적다.

끝으로 2011년 자료는 집부 미확인 고문헌에 붙인 서발류는 500건을 다루었는데, 이 시기에는 지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의 생애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서발문 및 인물관련정보를 수정하기도 하였다.

3. 기존 고서목록의 수정·보완

『한국 미확인 고문헌 목록』에 포함된 고문헌은 3,800여종이다. 이중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정리된 자료중 미확인본으로 인지된 것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이들 자료가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않고, 문집 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문헌에 합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문헌 중에서 일부는 현존본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 각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서목록의 서지사항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자료를 주제별로 보면 경부 15종, 사부 58종, 자부 21종, 집부 76종인데, 이중에서 고서목록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보면, 경부 15종·사부 15종·자부 6종·집부 7종이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경부 문헌

경부 문헌은 『한국 현전본 미확인 고문헌 목록』 중 현전하는 것이 15종이 전해지고 있다. 이중 서지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문헌 중 단행본으로 존재하지 않고 저작자들의 문집에 실려 있으며, 서문도 직접 쓴 것인데, 목록상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⁴⁾ 찾을 수 없는 자료들이다.

1) 한원진(韓元震)의 『거관록(居觀錄)』, 2) 서형수(徐澄修)의 『홍범직지(洪範直指)』, 3) 성해응(成海應) 편 의 『전전이자(傳箋異字)』, 4) 성해응(成海應) 편 의 『진주규오(陳注糾誤)』, 5) 정약용(丁若鏞)의 『단궁잠오(檀弓箴誤)』, 6) 이시흥(李時鎡)의 『상장의절(喪葬儀節)』, 7) 이병휴(李秉休)의 『상제례(喪祭禮)』, 8) 홍양호(洪良浩)의 『육서경위(六書經緯)』, 9) 김간(金幹)의 『소학筭기(小學筭記)』의 9종이다(<표 1>의 1-9 참조).

1) 한원진(韓元震)의 『거관록(居觀錄)』은 주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4) 국내 대부분의 고문헌종합시스템에서는 내용주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모두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서 시스템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검색이 가능하다.

서·발문을 통해본 미확인 고문헌의 현황과 기존 고서목록의 수정·보완에 관한 소고

글로 단행본으로 전해지는 것은 없고, 한원집의 문집인 『남당집(南塘集)』 권26에 들어 있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규 5642) 『남당집』 38권 습유 6권 합 22책은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201집-202집의 저본이며 영조 41년(1765) 간행의 목판본이다.

2) 서형수(徐瀼修)의 『홍범직지(洪範直指)』는 서형수의 『명고집(明臯集)』 권 20에 들어 있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규 6988)은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속 11집의 저본이며 숙종 30년(1704) 간행의 목판본이다.

3) 성해응(成海應) 편 의 『전전이자(傳箋異字)』는 성해응의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 외집(外集) 권9에 들어 있고, 4) 성해응(成海應) 편 의 『전전이자(傳箋異字)』는 성해응의 『연경재전집』 외집 권17-권19에 들어 있다.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貴555, 貴555A, 貴555B) 원집(原集) 61권 30책, 외집(外集) 70권 40책, 속집(續集) 17책, 행장(行狀) 1책 합 88책은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273집-279집의 저본이며 필사년도를 알 수 없는 패인사본(罫印寫本)이다.

5) 정약용(丁若鏞)의 『단궁잠오(檀弓箴誤)』는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154권 76책 제3집 예집(禮集) 24권 12책 중 권17-권20 『상례외편(喪禮外編)』에 들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장본(古3648-文69-2)은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281집-286집의 저본이며, 본서의 저본은 1934년부터 1938년까지 5년에 걸쳐 경성(京城)의 신조선사(新朝鮮社)에서 활자(鉛活字)로 인행된 초간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중 낙질(落帙)인 제2집의 권29·30, 제5집의 권26·27은 동일본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으로 보충·대체하였다.

6) 이시흥(李時鉞)의 『상장의절(喪葬儀節)』은 이시흥(李是鉞)의 『육회당유고(六悔堂遺稿)』 책2에 들어 있다. 현재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k13648-62-916) 소장의 필사본이며,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이 『근기실학연원체현집』 영인본 6책을 출판했는데 그중 6책에 들어 있다.

7) 이병휴(李秉休)의 『상제편(喪祭禮)』은 이병휴의 『정산집(貞山集)』 II에 들어 있다. 『정산집』은 개인소장의 필사본이며, 『근기실학연원체현집』 영인본 6책 중 3-4책에 들어 있다.

8) 홍양호(洪良浩)의 『육서경위(六書經緯)』는 홍량호의 『이계문집(耳溪外集)』 권10에 들어 있다. 『이계외집』은 홍량호의 저술인 『이계집(耳溪集)』, 『강설(講說)』, 『역상익전(易象翼傳)』, 『군서발배(群書發排)』, 『만물원시(萬物原始)』, 『육서경위(六書經緯)』, 『목민대방(牧民大方)』, 『북실기략(北室記略)』 등을 모아 현종 9년(1843)에 12권 5책으로 편집하여 전사자로 인출한 것이다. 권10에 들어 있는 『육서경위』는 금문(今文)에 항용(恒用)하는 글자가 1,700여자로 형(形), 의(意), 사(事), 성(聲) 등을 그 상(象)에 따라 뜻을 풀이하였는데, 양관편(仰觀篇)(천(天), 일(日), 월(月), 운성(雲星)), 부찰편(俯察篇)(지상의 사물), 근취편(近取篇)(사람에 관한 것), 원치편(遠取篇)(사람 이외의 것), 잡물편(雜物篇), 찬덕편(撰德篇), 변명편(辨名篇)으로 되어 있다.

9) 김간(金幹)의 『소학차기(小學筭記)』는 김간의 『후재집(厚齋集)』 권17-권20에 들어 있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奎7118)은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155집-156집의 저본이며 원집 46권, 별집 4권 합 25책은 영조 42년(1766)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영인본의 저본 중 연보와 일부는 연세대 중앙도서관 소장본을 보완 대체된 것이다.

둘째, 단행본으로 존재하지 않고 저작자들의 문집에 실려 있으며, 서문은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목록상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 찾을 수 없는 자료들이다. 10) 주재성(周宰成)의 『용학강의(庸學講義)』, 11) 최창락(崔昌洛)의 『소학체언(小學贅言)』의 2종이 있다(<표 1>의 10-11 참조).

10) 주재성(周宰成)의 『용학강의(庸學講義)』는 주재성의 문집인 『국담선생문집(菊潭先生文集)』 권2에 실려 있다. 이 책은 창원의 하환정(何換亭)에서 1908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 판본들은 현재 원광대, 전남대, 부산대 등 여러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용학강의』의 서문은 허전(許傳)이 ‘주국담용학강의서(周菊潭庸學講義序)’를 썼고, 이 서문은 허전의 『성재집(性齋集)』에 들어 있다.

11) 최창락(崔昌洛)의 『소학체언(小學贅言)』은 최창락의 문집인 『남애집(南厓集)』 권3에 실려 있다. 이 책은 1911년에 목활자로 간행한 4권 2책 본으로 고려대

서·발문을 통해본 미확인 고문헌의 현황과 기존 고서목록의 수정·보완에 관한 소고

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소학취언』의 서문은 심기택(沈琦澤)이 썼으며 이 서문은 『운가집(雲稼集)』에 들어 있다.

셋째, 책의 간행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로는 12) 이형상(李衡祥)의 『가례편고(家禮便考)』가 있다(<표 1>의 12 참조). 이 책은 한국학중앙연구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1982년 『병와전서(瓶窩全書)』라는 이름으로 10책을 영인하였는데, 그 중 책2에 『가례편고』가 실려 있다. 여기에 실린 『가례편고』는 영조 50년(1774)에 본집 18권에 부록을 포함하여 19권이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는데, 『병와전서』에 실린 채제공(蔡濟恭)의 서문에 의하면, “... 예서(禮書) 40권도 간행될 예정이라는 내용(先生有所著禮書四十卷。將以踵是而芻蕘云)”이 실려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예서(禮書)는 『가례편고(家禮便考)』와 『가례부록(家禮附錄)』, 『가례혹문(家禮或問)』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실제 『가례편고』 14권은 서사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여서 구체적인 간행계획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간행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목록상에 없거나, 저작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는 13) 이만부(李滿敷)의 『역통(易統)』, 14) 이세백(李世白)의 『예기정화(禮記精華)』, 15) 권상정(權尙精) 편 의 『변례집설(變禮集說)』의 3종이다(<표 1>의 13-15 참조).

13) 이만부(李滿敷)의 『역통(易統)』은 『한국역학대계(韓國易學大系)』 제13권, 『한국경학자료집성(韓國經學資料集成)』 제97책에 수록되어 있다. 『식산전서(息山全書)』 권17에는 『역통』의 서문만 실려 있으며, 『역통』 원본은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289호(1995년 3월 31일)로 지정된 일괄서적에 들어 있다. 13종 38책 및 유저 140여 권과 식산선생 문집 판목 등의 전적은 이만부의 10대손인 이용덕이 소장하고 있다. 저작사항은 ‘李滿敷(朝鮮) 著’로 처리해야 한다.

14) 정홍명(鄭弘溟) 등이 선집한 『예기정화(禮記精華)』는 이세백(李世白)이 정홍명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초선(鈔選)해 놓은 『예기정화』 30편을 손으로

베껴 쓰고, 중요한 전주(箋註)를 덧붙여 2책으로 만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필사본 2책이 소장되어 있는데 저작자가 빠져 있다. 따라서 저작사항은 ‘鄭弘溟(朝鮮)...等鈔選; 李世白(朝鮮) 箋註’로 표시해야 하고, 판본사항은 ‘傳寫本’으로 표시해야 한다. 『예기정화』의 서문은 이세백의 『우사집(雩沙集)』에 들어 있다.

15) 권상정(權尙精) 편 의 『변례집설(變禮集說)』은 예학의 주석을 모으고 그 의미를 밝힌데 대한 칭송의 글이다. ‘跋變禮集說’은 이재(李裁)의 『밀암집(密菴集)』에 들어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에 편자 미상의 필사본 3책이 남아 있는데, 저작사항은 ‘權尙精(朝鮮) 編’으로 기술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표 1>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 현전본 미확인 고문헌 목록」 중 경부 선집 자료

번호	대표서명		서지사항		관련서발문정보					간략내용	비고
	본서명	저작자	제목	저자	생년	몰년	저작자	본서명			
1	居觀錄	居觀錄	韓元震	居觀錄序	韓元震	1682	1751	韓元震	南塘集	주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글	『南塘集』 권26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규 5642 영조41년(1765) 목판본.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201집-202집의 저본)
2	洪範直指	洪範直指	徐滢修	洪範直指序	徐滢修	1749	1824	徐滢修	明阜全集	홍범 주석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와 이치를 기반으로 홍범직지를 쓴 이유를 밝힌 글	『明阜集』 권2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6938 숙종30년(1704) 목판본.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속 11집의 저본)
3	傳箋異字	傳箋異字	成海應編	傳箋異字序	成海應	1760	1839	成海應	研經齋全集	정현이 모시를 고친 부분만을 따로 엮은 취지를 밝힌 글	『研經齋全集』 외집 권9 (고려대 도서관 貴555. 貴555A. 貴555B 필사본.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273집-279집의 저본)
4	陳注糾誤	陳注糾誤	成海應編	題陳注糾誤後	成海應	1760	1839	成海應	研經齋全集	예기의 다양한 주석을 선별하여 정리한 취지를 밝힌 글	『研經齋全集』 외집 권17-권18(고려대 도서관 貴555. 貴555A. 貴555B 필사본.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273집-279집의 저본)
5	檀弓箴誤	檀弓箴誤	丁若鏞	題檀弓箴誤	丁若鏞	1762	1836	丁若鏞	與猶堂全書	단궁편이 지닌 의의와 그것을 줄이고 주석을 수정하여 단궁잠오를 엮은 취지를 밝힌 글	『與猶堂全書』 第三集 禮集 其二 第十八卷喪禮外編 권1-권2 (국립중앙도서관 古3648-文69-2 연월자본.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281집-286집의 저본)

서·발문을 통해본 미확인 고문헌의 현황과 기존 고서목록의 수정·보완에 관한 소고

번호	대표서명	서지사항		관련서발문정보					간략내용	비고	
		본서명	저작자	제목	저자	생년	몰년	저작자			본서명
6	喪禮	喪葬儀節	[李是鉞]	喪葬儀節自序	[李是鉞]			李是鉞	六梅堂遺稿	초상을 치를 때 분수에 넘치거나 예법에 어긋나는 사항을 적어 놓은 것.	『六梅堂遺稿』 책2 국립중앙도서관 k13648-62-916 필사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근기실학원전제현집』 영인본 6책중 6책)
7	喪禮	喪祭禮	李秉休	喪祭禮序	李秉休	영조 / 정조 연간		李秉休	貞山集 II	朱子家禮 중에서 喪祭 2편의 글을 적고, 通禮祠堂一章 등등을 부기하였음. 그러나 대체의 요지는 성호 이익의 家禮疾書나 喪威前後錄 등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였음. 庚寅년에 이 글을 씀.	『貞山集』 (개인소장의 필사본, 근기실학원전제현집, 영인본 6책중 3-4책)
8	六書	六書經緯	洪良浩	六書經緯序	洪良浩	1724	1802	洪良浩	耳溪集	육서의 모양, 의미, 사태, 소리 등을 주석하여 엮은 육서경위의 의의를 밝힌 글	『耳溪外集』 권10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계명대, 고려대, 장서각, 연세대, 충남대, 조선대)
9	小學	小學筭記	金翰	題小學筭記後	金翰	1646	1732	金翰	厚齋集	金翰이 1679년에 친구인 完山 李士秀, 동생 仲固와 함께 小學을 강론하면서 있었던 여러 의견들을 기록한 책.	『厚齋集』 권18-권2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규7118 영조42년(1766) 목판본,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155집-156집의 저본)
10	大學 / 中庸	庸學講義	周宰成	周菊潭庸學講義序	許傳	1797	1886	許傳	性齋集	周宰成(국답)이 어려서 부터 학문에 뜻을 두어 경전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특히 庸學에 힘써 깊게 침잠하고 반복하여 유학자들의 여러說을 모으고 자신의 견해를 참고로 절충하여 大學講義와 中庸講義 두 편을 지었다고 함. 그 대체적인 내용은 주자의 章句를 근본으로 하고 여기에 부연설명을 한 것이라고 함.	『菊潭集』 권2 (고려대, 경기대, 국민대, 부산대, 숙명여대, 원광대, 전남대, 전주대, 충남대 도서관, 1908, 목판본)
11	小學	小學贅言	崔昌洛	小學贅言序	沈琦澤	1826		沈琦澤	雲稼集	崔昌洛이 소학에 대해 주를 달고 동이득실에 대해 고증.	『南厓集』 권3 (고려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11, 목활자본)

번호	대표서명	서지사항		관련서발문정보					간략내용	비고	
		본서명	저작자	제목	저자	생년	몰년	저작자			본서명
12	家禮	家禮便考	李衡祥	家禮便考序	李衡祥	1653	1733	李衡祥	瓶窩集	주희의 주자가례에 자신이 주석을 쓰게 된 내력을 서술한 글	한국학중앙연구원 『瓶窩全書』 영인본(1988) 책2 家禮便考(저본은 필사본)
13	易統	易統	李萬敷	易統序	李萬敷	1664	1732	李萬敷	息山集	자신이 네 성인의 역을 공부하여 역통을 지은 경위와 의의를 밝힌 글	『韓國易學大系』 제13권, 『韓國經學資料集成』 제97책에 수록. 『息山全書』 권17에는 역통서문만 실려 있으며, 『易統』 원본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89호(1995년 3월 31일)로 지정된 일괄서적에 들어 있다.
14	禮記	禮記精華	鄭弘溟 鈔選/ 李世白 箋註	禮記精華跋	李世白	1635	1703	李世白	雪沙集	李世白이 鄭弘溟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鈔選해 놓은 禮記精華 30篇을 손으로 베껴쓰고, 중요한 箋註를 덧붙여 2冊으로 만들었음.	鄭弘溟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鈔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에 저작자 빠져 있음)
15	變禮集說	變禮集說	權尙精 編	跋變禮集說	李裁	1657	1730	李裁	密菴集	권상정이 예학의 주석을 모으고 그 의미를 밝힌 데에 대한 칭송. 권상정의 자는 일지(一之).	한국국학진흥원 도서관 소장본에 저자미상으로 되어 있음. 權尙精, 權萬斗가 주기사항에 들어 있음.

3.2 사부 문헌

사부 문헌은 『한국 현전본 미확인 고문헌 목록』 중 현전하는 것이 58종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 자료중 서지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15종만 선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자나 편자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서문과 관련 자료를 통해 저작자를 정확하게 밝힌 사례들이 있다. 1) 『경림문희록(瓊林聞喜錄)』, 2) 『광효록(廣孝錄)』, 3) 『동고록(同苦錄)』, 4) 『명심록(銘心錄)』, 5) 『군신언지록(君臣言志錄)』, 6) 『김씨사효록(金氏四孝錄)』, 7) 『수초록(遂初錄)』, 8) 『계미기사(癸未記事)』의 8종이다(<표 2> 1-8 참조).

서·발문을 통해본 미확인 고문헌의 현황과 기존 고서목록의 수정·보완에 관한 소고

1) 「경림문희록(瓊林聞喜錄)」은 「군서표기(群書標記)」에 의거하면, 규장각이 정조 15년(1791)에 왕명을 받들어 성균관 유생과 음관의 과시에서 우수한 작품을 모아 편집하여 壬寅字로 간행한 것이다. 당시 내각의 검교직각을 맡고 있던 이만수가 서문을 썼다. 이 책을 소장하고 있는 각 기관마다 편저자가 다르게 되어 있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은 ‘正祖(朝鮮) 命編’, 국립중앙도서관은 ‘成均館 編’ 또는 ‘奎章閣 編’, 이화여대에는 ‘編著者未詳’, 장서각에는 ‘尹益烈(朝鮮)...等撰; 正祖(朝鮮王, 1752-1800) 命編’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奎章閣 奉命編’으로 통일해야 한다.

2) 「광효록(廣孝錄)」은 홍계희(洪啓禧)가 왕명을 받아 영조 41년(1765) 11월 13일 술잔 받을 때의 賓啓와 왕세손의 상소와 갱운시(賡韻詩)를 엮어서 1책으로 엮었으며(「조선왕조실록」 44집 영조 41년(1765) 11월 13일조), 그해에 무신자로 간행된 책이다. 현재 이 책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과 장서각에 남아있는데 편자미상으로 되어 있다. 편자미상은 ‘洪啓禧(朝鮮) 奉命編’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 책과 관련이 있는 정약용(丁若鏞)의 ‘跋廣孝錄’은 임금이 아버지 정재원(丁載遠)에게 내려 준 「광효록」의 의의와 쓰임에 대해 서술한 글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제1집 시문집 제14권에 실려 있다.

3) 「동고록(同苦錄)」은 최석항과 동료들이 숙종 2년(1676) 신교(新橋)의 심정여(沈淨如) 집에서 함께 즐기며 수양한 일을 기록한 글이고, ‘同苦錄引’은 심정여가 숙종 2년(1676) 신교의 자기 집에서 과거 공부를 할 때의 사실을 「동고록」에 실어 40년 후에 최석항에게 보내자 최석항이 경종 2년(1722)에 쓴 것이다.⁵⁾ 이 서문은 최석항(崔錫恒)의 「손와선생유고(損窩先生遺稿)」 권22에 실려 있으며, 서문을 통해 「동고록」의 편자는 심정여임을 알 수 있다. 숙명여대에 편자미상의 「동고록」이 소장되어 있는데, 편자는 ‘沈淨如(朝鮮) 編’으로 기술해야 한다.

4) 「명심록(銘心錄)」은 박순(朴淳)이 국가의 기신(忌辰)(제삿날)을 기록해놓

5) 崔錫恒 著, 「損窩先生遺稿」 卷22 雜著 同苦錄引.

“... 今也提携同志。會于新橋。切磋之功著。附驥之願遂。不亦樂乎。爲之文。所以志也。曾在丙辰夏。會做科工於新橋沈淨如家。書同苦錄於卷端。仍書跋語。壬寅春。次之胤進賢。手持跋文來示余。屈指四十餘年。卷中人餘存無幾。只有俞台大叔及余二人。...”

은 것으로 편차는 앞에 국기(國忌)를 두고 뒤에 가기(家忌)를 기록한 것이다. ‘銘心錄序’는 『사암선생문집(思菴先生文集)』 권4에 실려 있다.⁶⁾ 한국국학진흥원에 편자미상의 『명심록』이 소장되어 있는데, 편자는 ‘朴淳(朝鮮) 編’으로 기술해야 한다.

5) 『군신언지록(君臣言志錄)』은 조선 중기의 학자인 채득기(蔡得沂, 1605-1646)가 청나라 심양에 볼모로 잡혀간 봉림대군(鳳林大君)(효종)을 모시면서 지은 시와 봉림대군이 지은 시 및 채득기와 관련된 글을 모은 책이다. 이외에 후손인 채극철(蔡克哲), 채응하(蔡應夏), 채휴징(蔡休徵) 등의 부록(附錄)과 후서(後敍) 및 권집(權緝)의 발문이 부기되어 있다. 이만부(李萬敷)의 “君臣言志錄序”는 이만부의 『식산선생문집(息山先生文集)』 권17에 실려 있는데, 이 서문에는 채만원(蔡萬元)이 편집하여 이만부에게 서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군신언지록』의 편자는 채만원(蔡萬元)임을 알 수 있다.⁷⁾ 국립중앙도서관과 연대도서관 소장본에는 『군신언지록』의 편자가 ‘채휴징(蔡休徵)’으로, 영남대 도서관에는 저자가 ‘채득기(蔡得沂)’로, 규장각에는 편자지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서문에 의거하여 ‘蔡萬元(朝鮮) 編’으로 정정해야 한다.

6) 『김시사효록(金氏四孝錄)』은 우수공(愚叟公)의 후손인 김상철(金尙澈)이 라옹(懶翁) 김광범(金光範), 우수(愚叟) 김상범(金尙範), 뇌수당(牢睡堂) 김성범(金聲範), 죽옹(竹翁) 김정서(金鼎瑞)의 행적을 모아 엮어서 순조(純祖) 31년(1831)에 목활자본으로 간행하였고(계명대학교 소장), 이어 융희(隆熙) 2년(1908)에 다시 중간한 것이다(전남대, 국중, 전주대, 장서각, 경기대 등). ‘題金氏四孝錄後’는 홍직필의 문집인 『매산선생문집(梅山先生文集)』 권29에 실려 있다.⁸⁾

6) 朴淳 著, 『思菴先生文集』 卷4 ‘銘心錄序’.

“君子有終身之喪。忌日之謂也。淳不肖。性亦昏惰。疾病呻吟之間。事故奔忙之際。頗有忘不行。故家國諱辰。記爲小編。持諸掌上。出入不釋。儼若奉承。嗚呼。君親雖曰不同。忠孝本無二致。以身言之。則家先而國後。以禮言之。則國尊而家卑。是以。冠以國忌。次錄家忌云。”

7) 李萬敷 著, 『息山先生文集』 卷17 ‘君臣言志錄序’.

“… 三十五年孟夏。蔡斯文萬元。攜一錦裝卷題曰君臣言志錄者。過余請以言弁其首。…”

8) 洪直弼, 『梅山先生文集』 卷29 ‘題金氏四孝錄後’.

실제 남아 있는 「김씨사효록」에는 홍직필의 ‘題金氏四孝錄後’는 실려 있지 않고, 순조 31년(1831)본에는 김이익(金履翼)의 서(1819)와 김상철(金尙澈)의 발문이 실려 있고, 1908년 본에는 위백순(魏伯純)의 서(1873), 김우(金王+宇)(1908)의 서문이 실려 있고, 김한태(金漢兌)와 김한각(金漢珪)의 중간발(1908)이 실려 있다. 이 책은 각 도서관마다 목록이 다르고 편자표시도 있거나 미상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전기서여서 저작자는 편자이므로 ‘金尙澈(朝鮮) 編’으로 해야 한다. 본서명이 ‘靈光金氏四孝錄’이고, 표지서명 또는 약서명은 ‘金氏四孝錄’이다. 전기의 당사자인 4명은 주기사항에 ‘被傳者: 懶翁(金光範), 愚叟(金尙範), 牢睡堂(金聲節), 竹翁(金鼎瑞)’과 같이 기술해야 하고 피전자는 모두 부출해야 한다. 부록에 두 자료가 실려 있는데, 이도 ‘附錄: 石潭公(金有信)事蹟. 懶翁公長女韓得良妻撰新村公(韓南秀)傳’과 같이 기술해야 한다.

7) 「수초록(遂初錄)」은 이돈우(李敦宇, 1801-1884)가 조인영(趙寅永)(조운석(趙雲石))이 이문원(摛文院)에서 찾아낸 「치정고(致政攷)」를 참고하고 동료들의 치사기록(致仕記錄)들을 충고(叢攷), 통고(通攷), 영고(榮攷), 벌열고(閔閱攷), 및 기안(耆案), 훈권(勳券), 과방(科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105인을 기록하였고, 여기에 이유원(李裕元)이 다시 5인을 첨가하고 이후 보충하였다. 이유원의 ‘遂初錄序’는 이유원의 「가오고략(嘉梧藁略)」 책12에 실려 있고,⁹⁾ 규장각 소장본인 「삼의록(三猥錄)」(古 4650-130)에도 들어 있다. 고려대의 소장본(만송B8-A342, 육당 B7-A27)인 「수초록」은 모두 필사본인데 ‘編者未詳’으로 되어 있고, 규장각 소장

“右金氏四孝錄。輯懶翁金公光範，愚叟金公尙範，牢睡堂金公聲節，竹翁金公鼎瑞行治。而附以石潭金公有信事實者也。…故愚叟公後孫尙菴氏有云人孰不以其先祖爲善哉。然苟或不善而強認以爲善。則之入也便是別人。而非其先祖也。不幾於自欺而誣先哉。吾所以想像而記認者。果吾先祖。而庶免別人之誣。吾心得無校乎。其所質言乃爾。人孰聞然哉。且況諸公序述。發潛幽闕。更無餘辭乎。牢睡公七代孫珉。從余遊。謁卷跋之文。…”

9) 李裕元, 「嘉梧藁略」冊12 「遂初錄序」.

“…近古雲石趙公。於摛文直廬。偶得致政攷一冊。只錄五十有七人。年繫英廟丁亥也。博采掌故。又得二十七人。時純廟丁亥。而有跋語藏于閣。公素有志願也。今上丙寅。莘憩李公。休居鄉園。絕影朝門。著書以消磨歲月。搜趙公所集致政攷於內度。屢不得。因就昭代羣書中叢攷，通攷，榮攷，閔閱攷及耆案，勳券，科榜等編所錄。至于公爲百五人。余亦自己巳始。又補五人。何其盛也。書成。命其錄曰遂初。託余重訂之。…”

의 『삼외록(三猥錄)』은 『수초록』과 이돈우(李敦宇)의 소(疎)를 합한 3편과 재종손이 첨부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李敦宇 著’로 되어 있다. 『수초록』의 저작자는 ‘李敦宇(朝鮮) 編; 李裕元(朝鮮) 增編’으로 기술해야 한다.

8) 『계미기사(癸未記事)』는 이정형(李廷馨)이 선조 16년(1583)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고 있다. 이는 현재 미국 하바드엔칭도서관에 『癸未記事 / 時政錄』이 소장되어 있고, 김려(金鑪)(조선) 편외사(寒臯觀外史) 권51에 『이성중록계미기사(李誠中錄癸未記事)』가 수록되어 있다. 이 글은 모두 저작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김려의 『담정유고(澹庭遺藁)』에 실린 ‘題癸未記事卷後’에서 ‘癸未記事 卽李忠簡誠中所錄’¹⁰⁾라고 되어 있어 저작자가 ‘李廷馨’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편찬 및 간행경위를 알 수 있는 문헌들이 있는데, 9) 우성진(禹性傳)의 『계갑일록(癸甲日錄)』, 10) 우복룡(禹伏龍)의 『동계잡록(東溪雜錄)』, 11) 김인후(金麟厚)의 『하서언행술(河西言行述)』의 발문이 남아 있다. 이들 세 문헌의 발문을 쓴 사람은 김려¹¹⁾이다. 그는 순조 17년(1817) 10월부터 순조 19년(1819) 3월까지 연산현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한고관외사』와 『담정총서(澹庭叢書)』 등을 편찬하였다. 그의 문집인 『담정유고』 권 7과 권11에는 ‘題 … 卷後’가 많이 실려

10) 金鑪, 『澹庭遺藁』 卷11 ‘題癸未記事卷後’.

“野史有三。曰著曰述曰錄。著者如栗谷之石潭日記是也。述者如知退之東閣雜記是也。錄者如松江之時政錄是也。槩錄多於述。述多於著。其勢然也。錄有繁有簡。有詳有略。其詳而繁者。如世所謂爛餘等書。雖充棟而汗牛。猶有所不足。必也畧而簡者有可觀。何則。取捨精也。癸未記事。卽李忠簡誠中所錄。凡一卷。蓋時政錄之類也。無一句貶褒。無一字是非。只是抄錄於朝報畫直分撥疏筭等軸。而彼一按。可知爲西人之筆。此一按。可知爲東人之…”

11) 金鑪는 영조 42년(1766)부터 순조 22년(1822) 사이의 인물이다. 본관은 延安 자는 士精, 호는 澹庭, 노론계 명문인 載七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姜彝天의 飛語事件에 연좌되어 부령으로 유배당했고, 1801년 신유사옥에 연루되어 진해로 유배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만년에 아들의 노력으로 유배에서 풀려나 함양군수로 있다가 56세에 세상을 떠났다. 젊은 시절에 李鈺·李安中 등 진보적인 학자들과 사귀었다. 활발한 저술활동을 통해 이룬 많은 글들을 자신의 문집인 『澹庭遺藁』에 실었다. 이 문집에는 악부시를 비롯해 한시가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밖에 일기·편지·傳·跋文·上樑文 등이 있다. 같은 취향을 가진 주위 문인들의 글도 모아 『澹庭叢書』를 엮었다. 여기에는 이옥·이안중·이우신을 비롯한 당대 문인들의 글 46편이 수록되어 있어, 문학사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서·발문을 통해본 미확인 고문헌의 현황과 기존 고서목록의 수정·보완에 관한 소고

있는데,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인물평, 역사의식, 저작자, 편찬·간행경위, 출판사항, 판본사항 등 같은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김려가 서문을 쓴 세 문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의 9-11 참조).

9) 『계갑일록(癸甲日錄)』은 우성전이 선조 16년(1583) 6월에서 선조 17년(1584) 7월까지 저자가 연관직(言官職)에 있으면서 접한 매일 매일의 정치 관련 기록이 일기체로 정리된 저서이다. 이 책은 ‘禹公癸甲日錄’, ‘秋淵先生癸甲日錄’으로도 일컬어진다. 이 책은 조선 말기까지 간행되지 못하고 등사본으로 유포되어 오다가 고서간행회에서 『대동야승(大東野乘)』을 간행할 때 그 중에 제24권으로 수록되어 1911년에 간행되었다. 1939년 영주향교에서 영인하였고, 1971년에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되었으며 1986년에 영주 호암정(湖巖亭)에서 중간되었다. 『계갑일록』의 끝에는 선조 33년(1600)에 서애 유성룡이 쓴 ‘題禹景善日記後二首 및 題’가 실려 있는데 발문형식의 글이다. 이에 비해 김려가 쓴 ‘題癸甲日錄卷後’은 김려의 문집인 『담정유고』 권11에 실려 있는데, 우성전이 저술한 『계갑일록』의 내용이 편협한 시각에서 이루어졌음을 비판하고, 끝에 교정하여 4권으로 만들어 外史에 넣는다고 하였다.¹²⁾ 이는 김려가 엮은 『한고관외사』 권 131-133에 들어 있음을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 들어 있는 것은 필사본이다.

10) 우복룡(禹伏龍)의 『동계잡록(東溪雜錄)』은 그 내용 중에 선조 5년(1572) 이준경(李浚慶)이 봉당의 조짐이 보인다는 유소(遺疏)를 올린 사실과 이에 대해 이이(李珣)가 근거없는 내용을 조작해 조정을 어지럽힌다고 탄핵한 이이의 봉당소(朋黨疏)를 실고 있다. 김려가 쓴 ‘題東溪雜錄卷後’는 그의 문집인 『담정유고』 권11에 실려 있는데, 김려는 이 발문을 통해 『동계잡록』에 대한 칭송과 그의

12) 金鑣, 『薄庭遺藁』 卷11 ‘題癸甲日錄卷後’.

“余讀朴東亮寄齋雜記。云李公著曰寅城於軍國重事。不得措一辭。獨於東西之說。言論風生。人人所不及。可謂爲黨論而生者也。聞者捧腹。余於禹景善亦云。今觀其所著日錄。其偏狹之性。黷亂之氣。溢於紙上。肺肝之不可掩如是夫。是以取與西厓爲知己。兩人者。皆朋黨之雄耳。故同社中如公著諸人。以緩論擯斥之嘲侮之。重言複言。不遺餘力。嗚呼。此何事也。其亦可哀也哉。且其文詞拙陋。無足觀者。特以勇於黨論。見重於金肅夫。李景涵輩耳。以其中多載伊時事蹟。故釐爲四卷。付諸外史。以備參攷云。”

문제와 역사적 의식에 대해 서술하였다. 끝에 이 글을 고정하여 4권으로 만들어 외사(外史)에 넣고, 권중에 정릉화변(靖陵禍變) 및 보우사(普雨事)가 자세하여 신사준(愼師浚)이 편집한 『정릉지략(靖陵志略)』을 부록으로 넣는다고 하였다.¹³⁾ 이 발문을 통해 우복룡의 『동계잡록』이 김려가 엮은 『한고관외사』 권45-48에, 신사준의 『정릉지략』은 『한고관외사』 권24 들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1) 김인후(金麟厚)의 『하서언행술(河西言行述)』은 김려(조선) 편인 『한고관외사』 권112에 조희문(趙希文) 집(輯)의 『하서언행술』이 실려 있다. 조희문(1527-1578)은 김인후의 문인이자 사위로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 김인후의 학설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성(誠)과 경(敬)의 실천을 학문의 목표로 삼았다. 김인후의 문집 편찬에 관여하였다. 김려의 『題河西言行述卷後』는 『한고관외사』 권56과 『담정유고』 권11에 실려 있다.¹⁴⁾ 이 두 발문에서 『하서선생문집(河西先生文集)』의 중간(重刊)의 내용과 『하서언행술』의 등사(謄寫)가 김려에 의해 정축(丁丑)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서선생문집』의 중간은 현존본의 부록 권4 연보(年譜) 二十二張(下)에 ‘一百五十九年今上二年壬戌夏五月重刊文集成’의 내용

13) 金鑣, 『薄庭遺藁』 卷11 ‘題東溪雜錄卷後’.

“余嘗讀安晚磯泰定所述東國儒賢錄。曰禹懼庵伏龍字見吉。一號東溪。丹陽人。舉進士。以薦仕官至監司。壬辰以後。多所歷試。藉有聲績。初從閔杏村學。後又往來牛溪門下。以學行稱云。及見他野史。往往言公之治郡。善鉤距發奸擿伏如神。其術多機譎。有趙京兆。韓馮翊之風。今覽其所著東溪雜錄者。可以想像其爲人。以公廉刻峭之性。絢之以文學經術。真有用之才也。然細究其言論行蹟。蓋沾沾自喜。頗好訐揚人之過失。此其所短也。茲釐爲四卷。付諸外史。以其卷中記靖陵禍變及普雨事頗詳。故以愼丈師浚所輯靖陵志略附焉。”

14) 金鑣(朝鮮)編, 『寒皐觀外史』 卷56 ‘題河西言行述卷後’.

“宋尤翁嘗言我東名賢學節義文章之兼備者以河西金先生爲稱首焉。我正廟以天縱之聖。處君師之位。特改先生之諡文靖曰文正。躋祀文廟。而又重刊先生文集。以壽其傳。於是先生之道學也節義也文章也。始大彰明于世。嗚呼盛哉。病臥山屋。乞書於隣人。有以河西言行述數千張借之者。敬讀再三。恍如狽寒門而灑清颺矣。茲精寫爲一卷付諸外史。以資操觚者之取訂焉。丁丑仲夏丙寅小暑薄愚書。”

金鑣, 『薄庭遺藁』 卷11 ‘題河西言行述卷後’.

“宋尤翁嘗言我東名賢。道學節義文章之兼備者。必以河西金先生爲稱首焉。及我正宗以天縱之聖。處君師之位。特改先生之諡文靖曰文正。躋祀文廟。而又重刊先生文集。以壽其傳。於是先生之道學也文章也節義也。始大彰明于世。嗚呼盛哉。病臥山屋。乞書於隣人。有以河西言行述數十張借之者。敬讀再三。恍如狽寒門而灑清颺矣。”

서·발문을 통해본 미확인 고문헌의 현황과 기존 고서목록의 수정·보완에 관한 소고를 통해 순조(純祖) 2년(1802)에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고, 김려가 『하서언행술』을 등사한 것은 순조 17년(1817)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저작자 및 편찬 경위를 동시에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서거정의 『歷代年表』이다. 이 자료에는 세편의 서문이 들어 있다. 『歷代年表』(12-14)는 서거정이 역사에 대해 공부하다가 기존의 서적들이 번다하여 섭렵하기 어려운 것을 병통으로 여겼다. 이에 육십갑자(六十甲子)를 기준으로 연도에 따라 일을 기록하고 상하 편으로 나누어 중국과 우리나라를 구분하여 1480년(성종 11)에 총 5권으로 완성하였다. 이 글은 서거정(徐居正)의 자서(自序)(〈표 2〉의 12 참조)와 강희맹(姜希孟)(〈표 2〉의 13 참조), 이승소(李承召)(〈표 2〉의 14 참조)의 서문이 남아 있어 저작자 및 편찬경위를 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역대연표(歷代年表)』가 소장되어 있는데 ‘編者未詳’으로 되어 있다. 저작자는 ‘徐居正(朝鮮) 著’로 기술해야 한다.

넷째, 판본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15) 이존중(李存中)의 『국조명신록(國朝名臣錄)』이다(〈표 2〉의 15 참조). 이 자료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규 5721, 李存中 編, 英祖年間(1724 - 1776), 필사본’이 있는데 63권 30책이다. 김려의 ‘題國朝名臣錄卷後’는 『담정유고』 권11에 실려 있다. 이 발문에 의하면, 이 책은 김후기(金侯箕)가 쓰고, 그의 종숙(從叔) 김상성(金相聖)이 집록하고 이존중에 의해 30권으로 완성되었다. 저곡(苧谷) 박태(朴台)가 빌려 갔다가 6편을 잃어버리고, 초고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¹⁵⁾ 현재 남아있는 『국조명신록』은 ‘傳寫本’으로 정정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표 2〉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5) 金鑣, 『薄庭遺藁』 卷11 ‘題國朝名臣錄卷後’.

“故芝汀元侍郎孺良家所莊國朝名臣錄。不著誰人所述。傳者以爲荷堂李公存中所纂。余聞清道倅金侯箕書言。以爲其從叔縣令諱相聖之所輯錄。而成於荷堂之手。想當然。書凡三十卷。苧谷朴台借去。逸其六編。金李俱後承不慧。草藁已無存者。惜哉。姑俟搜訪以補。然借人書籍者。當以濟陽江祿爲法。後生戒之哉。”

<표 2> 「한국 헌전본 미확인 고문헌 목록」 중 사부 선집 자료

번호	대표서명	서지사항		관련서발문정보					간략내용	비고	
		본서명	저작자	제목	저자	생년	몰년	저작자			본서명
1	瓊林聞喜錄	瓊林聞喜錄	奎章閣奉命編	瓊林聞喜錄	李晩秀	1752	1820	李晩秀	履園遺稿	성균관 유생과 음관의 과사에서 우주(朝鮮) 命編, 국중에는 成均館編 또는 奎章閣編. 이화여대에는 편저자미상, 장서각에는 尹益烈 (朝鮮)...等撰 ; 正祖 (朝鮮王, 1752-1800) 命編으로 되어 있음.	
2	廣孝錄	廣孝錄	洪啓禧奉命編	跋廣孝錄	丁若鏞	1762	1836	丁若鏞	輿猶堂全書	규장각, 장서각에 「廣孝錄」이 소장되어 있는데, 편자미상으로 미상으로 되어 있음. 「조선왕조실록」 44집 영조 41년(1765) 11월 13일에 洪命憲에게 명하여 「廣孝錄」을 편집하도록 함.	
3	同苦錄	同苦錄	沈淨如編	同苦錄引	崔錫恒	1654	1724	崔錫恒	損窩遺稿	최석항과 동료들이 신교에서 함께 즐기며 수양한 일을 기록한 글에 대한 의미 부여	속대 도서관에 편자미상의 「同苦錄」이 소장되어 있음.
4	銘心錄	銘心錄	朴淳編	銘心錄序	朴淳	1523	1589	朴淳	思菴集	본서는 박순이 편집한 것이다. 國家의 忌辰(제삿날)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편자는 앞에 國忌를 두고 뒤에 家忌를 기록함.	한국국학진흥원에 편자미상의 「銘心錄」이 소장되어 있음.
5	君臣言志錄	君臣言志錄	蔡萬元等編	君臣言志錄序	李萬敷	1664	1732	李萬敷	息山集	채징공에서부터 이하에 이르는 신하들의 가개와 그것을 보관한 채만원에 대한 칭송의 글	국중과 연대도서관에는 蔡休徵 編의 「君臣言志錄」이, 영남대 도서관에는 蔡得沂 著의 君臣言志錄이, 규장각에는 편저자 미상의 君臣言志錄이 소장되어 있음
6	金氏四孝錄	金氏四孝錄	金尙喆編	題金氏四孝錄後	洪直弼	1776	1852	洪直弼	梅山集	김광범의 집안에 있는 효행을 엮은 서적의 부집 취지를 밝힌 글	愚叟公의 後孫인 金尙喆이 懶翁 金光範, 愚叟 金尙範, 半睡堂 金聲範, 竹翁 金鼎錫의 행적을 모아 엮어서 純祖 31년(1831)에 목활자본으로 간행하였고(계명대학교 소장), 이어 隆熙 2년(1908)에 다시 증간한 것이다(전남대, 국중, 전주대, 장서각, 경기대 등)

서·발문을 통해본 미확인 고문헌의 현황과 기존 고서목록의 수정·보완에 관한 소고

번호	대표서명	서지사항		관련서발문정보					본서명	간략내용	비고
		본서명	저작자	제목	저자	생년	몰년	저작자			
7	遂初錄	遂初錄	李敦宇 編； 李裕元 增編	遂初錄序	李裕元	1814	1888	李裕元	嘉梧藥略	李敦宇(1801-1884)가 趙寅永(趙雲石)이 摛文院에서 찾아낸 『致政攷』를 참고하고 동료들의 致仕記錄들을 叢攷, 通攷, 榮攷, 閔閣攷, 및 著案, 勳劄, 科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105인을 기록하였고 여기에 李裕元이 다시 5인을 첨가하고 이후 보충하였음.	고대소장본은 편저자미상의 『遂初錄』이 소장되어 있음. 규장각에는 『三畏錄』내에 『遂初錄』이 들어 있음.
8	癸未記事	癸未記事	李廷馨	題癸未記事卷後	金鑣	1766	1822	金鑣	漭庭遺藁	이정형의 계미기사에 대해 서술하며 훌륭한 기록임을 칭송한 글	미국 하바드연칭도서관에 편저자 미상의 『癸未記事 / 時政金鑣(朝鮮)』編의 『寒臯觀外史』 권51에 『李誠中錄 癸未記事』가 수록되어 있음.
9	癸甲日錄	癸甲日錄	禹性傳	題癸甲日錄卷後	金鑣	1766	1822	金鑣	漭庭遺藁	우성전이 쓴 『계갑일록』의 편찬한 시각에 대해 비판한 글	禹性傳의 『癸甲日錄』은 등사본으로 유포됨. 1911년 한국고서간행회에서 간행, 1939년 영주향교에서 영인, 1071년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 1986년 영주 호암정에서 증간함. 『題癸甲日錄卷後』는 金鑣의 『漭庭遺藁』 권 11에 실려있음.
10	東溪雜錄	東溪雜錄	禹伏龍	題東溪雜錄卷後	金鑣	1766	1822	金鑣	漭庭遺藁	구암(懼庵) 우공이 지은 동계잡록에 대한 칭송과 그의 문재와 사적 의식에 대해 서술한 글	東溪雜錄 / 禹伏龍(朝鮮) 著(국중, 안동대, 동국대). 東溪雜錄 / 禹伏龍(朝鮮) 著; 禹成鍵(朝鮮) 編(고려대, 대구 카톨릭대, 충남대). 金鑣(朝鮮) 編 『寒臯觀外史』 권45-48에 『禹伏龍撰東溪雜錄』이 수록되어 있음.
11	河西言行述	河西言行述	金麟厚	題河西言行述卷後	金鑣	1766	1822	金鑣	漭庭遺藁	김인후의 언행록이 지닌 가치와 그 내용의 광대함에 대해 피력한 글	金鑣(朝鮮)編의 『寒臯觀外史』 권112에 趙希文輯河西言行述(장서각 K2-308, 간사년미상, 필사본)이 실려 있음.
12	歷代年表	歷代年表	徐居正	歷代年表序	徐居正	1420	1488	徐居正	四佳集	〃	국중에 편저자 미상의 『歷代年表』가 소장되어 있음.

번호	대표서명	서지사항		관련서발문정보					본서명	간략내용	비고
		본서명	저작자	제목	저자	생년	몰년	저작자			
13	歷代年表	歷代年表	徐居正	歷代年表序	姜希孟	1424	1483	姜希孟	私淑齋集	서거정이 역사에 대해 공부하다가 기존의 서적들이 번다하여 섭렵하기 어려운 것을 병통으로 여겼다. 이에 육십갑자(六十甲子)를 기준으로 연도에 따라 일을 기록하고 상하편으로 나누어 중국과 우리나라를 구분하여 1480년(성종 11)에 총5권으로 완성하였다.	국중에 편저자 미상의 『歷代年表』가 소장되어 있음.
14	歷代年表	歷代年表	徐居正	歷代年表序	李承召	1422	1484	李承召	三灘集	”	국중에 편저자 미상의 『歷代年表』가 소장되어 있음.
15	國朝名臣錄	國朝名臣錄	李存中	題國朝名臣錄卷後	金鑣	1766	1822	金鑣	滯庭遺藁	이존증이 편찬하였다고 생각되는 국조명신록을 통해 후생에게 경계시키는 글	『國朝名臣錄』(규장각 한국학연구원 75721, 英祖年間(1724-1776), 필사본)

3.3 자부 문헌

자부 문헌은 『한국 현전본 미확인 고문헌 목록』 중 현전하는 것이 21종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 자료중 서지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6종만 선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자나 편자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서문과 관련 자료를 통해 저작자를 정확하게 밝힌 사례들이 있다. 1) 『계고편(稽古篇)』, 2) 『위정신서(衛正新書)』, 3) 『당시화의(唐詩畫意)』 등이다(<표 3> 1-3 참조).

1) 『계고편(稽古篇)』은 『강좌선생문집(江左先生文集)』 6권의 ‘稽古篇序’에 의하면, 정묵재(靜默齋) 권중경(權重經, 1642-1728)이 편집한 것으로 8책이다. 이 책은 『동방자집(東方子集)』을 모방하여 비상(碑狀), 기(記), 설(說), 소장(疏

서·발문을 통해본 미확인 고문헌의 현황과 기존 고서목록의 수정·보완에 관한 소고

章) 중 가언(嘉言)·위적(偉蹟)을 취하고 『자경편(自警編)』을 보고 분류 편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정목재가 이 책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그의 죽질 통경(通卿)이 보완하고 권만(權萬)이 서문을 써서 편집한 것이다. 현전본으로는 성암고서박물관에 『계고편』 권6, 권8 필사본이 전해지는데, 편자가 권정묵(權靜默)으로 되어 있다. 편자 권정묵은 권중경으로 정정해야 한다. 부산대 소장 필사본도 형식의 차이가 있지만 ‘編者未詳’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權重經(朝鮮) 編’으로 정정해야 한다.

2) 『위정신서(衛正新書)』는 홍재구(洪在龜, ?-1898)가 고종 20년((1883)에 위정척사를 위해 4권 2책으로 편집한 글이며 필사본이다. 충남 모덕사 소장인 현전본에는 ‘編者未詳’으로 되어 있는데, 서문에 의거하여 ‘洪在龜(朝鮮) 編’으로 정정해야 한다.

3) 『당시화의(唐詩畫意)』는 자하(紫霞) 신위(申緯, 1769-1845)가 순조 20년(1820)에 당시(唐詩) 가운데 호의(畫意)가 두드러지는 것을 선별하여 수록한 15권 15책으로 필사본으로 남아있는데, 당대 문인사대부의 예술동향과 의식을 살피는데 유용한 책이다. 또한 선집자인 신위의 예술론의 윤곽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의 편자와 필사시기에 대해서는 연세대 중앙도서관의 소장본(귀305) 속표지에는 ‘唐詩畫意’라는 제목 옆에 ‘紫霞山人鈔 凡十五卷 例目各一卷 庚辰秋八月 碧蘆舫藏本’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신위가 춘천부사에서 과직된 이듬해인 순조 20년(1820)에 가을 경기도 시흥에 있는 자신의 사저인 벽로방(碧蘆舫)에서 편집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⁶⁾ 버클리대학 아사미 문고본의 권말에 들어 있는 ‘壬戌(哲宗13,1862)夏藕史趙重弼輯竹下安銷書’의 필사기를 참고하면, 조중필(趙重弼)이 철종(哲宗) 13년(1862)에 편집하고, 안육(安銷)이 중초한 것이다. 이후의 필서기인 ‘庚辰(高宗17,1880)夏六月 荷花生日紫霞山樵客書’의 기록에 의해 고종 17년(1880)에 자하 신위가 전사한 것으로 기록했는데, 경진(庚辰)은 1880년이 아니라 1820년에 해당하므로 잘못 기록된 것이다. 『당시화의』

16) 금지아, “申緯 編選 《唐詩畫意》 중의 杜詩, 그 美學的 屬性,” 『열상고전연구』 18집(2003), 166.

에는 서문이 4종류가 있는데, 신위의 자서(自序) 2편, 서경보(徐耕輔)와 서기수(徐淇修)의 서문이 각 1편이다. 신위의 자서 2편은 신위의 화의(畫意)에 대한 인식배경이 담겨있다. 서경보의 서문에서 ‘唐詩畫意’는 신유경(申幼經)(신위)이 손수 초(鈔)한 것이라고 했고, 서기수의 서문에서는 신위야 말로 시화일치의 진정한 자득(自得)의 대가를 이룬 시인이라 극찬하였다. 발문은 홍현주(洪顯周)와 유본학(柳本學)이 썼는데, 홍현주는 당나라 시인들의 시작품을 평가하고 ‘唐詩畫意’가 신위의 선집임을 밝히고 있다. 유본학은 시의식의 단면을 서사하고, 신위가 쉬는 여가 중에 ‘唐詩畫意’를 엮었음을 밝히고 있다. 종합하건대, 『당시화의』는 신위가 순조 20년(1820)에 초선(鈔選)한 것이고, 철종 13년(1862)에 조중필(1843-?)이 편집하고 안육이 중초(重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저작표시에 대해 순조 20년(1820)본은 ‘申緯(朝鮮) 鈔選’으로 하고, 철종 13년(1862)본은 ‘申緯(朝鮮) 鈔選; 趙重弼(朝鮮) 編; 安鎔(朝鮮) 重鈔’와 같이 기술해야 한다.

둘째, 저작자의 역할어를 기술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4) 『삼서강록(三書講錄)』, 5) 『지의록(贄疑錄)』의 2종이 있다(<표 3> 4-5 참조).

4) 『삼서강록(三書講錄)』은 퇴계 이황(李滉)이 『가례(家禮)』, 『태극도설(太極圖說)』, 『통서(通書)』의 삼서를 강설한 것을 그의 제자 김용(金隆)이 집록한 것이다. 이 중 『가례강록(家禮講錄)』은 『물암집(勿巖集)』 권3, 『태극도설강록(太極圖說講錄)』과 『통서강록(通書講錄)』은 『물암집』 권4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발문을 쓴 김응조(金應祖)는 『삼서강록』의 간행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나 간행은 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 책의 저작 기술은 ‘李滉(朝鮮) 講說; 金隆(朝鮮) 手錄’으로 표시해야 한다.

5) 『지의록(贄疑錄)』은 이기심성존양극치(理氣心性存養克治)의 요점을 적은 글이다. 이진상(李震相)의 발문에 의하면 “어느 날 광명원(郭鳴遠)이 한 책을 꺼 내놓았는데, 그 책의 서명이 『지의록』이었다. 이진상이 각 조목의 밑에다 글을 지어 화답해주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고, 『한주집(寒洲集)』 권19 서(書)에 이진상이 답한 내용은 들어 있다. 이 책의 저작 기술은 ‘[編者未詳]; 李震相(朝鮮) 答錄’

서·발문을 통해본 미확인 고문헌의 현황과 기존 고서목록의 수정·보완에 관한 소고

으로 표시해야 한다.

셋째, 서문에 의해 전사본과 인출본에 대한 판본에 관한 사항을 전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6) 『연평답문록(延平答問錄)』이다(<표 3> 6 참조).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권43 ‘延平答問後語’(명종 3년, 1553)에 보면, “퇴계는 일찍이 주희의 『사서집주(四書集註)』와 『사서혹문(四書或問)』은 보았으나 『사서문답록(四書問答錄)』은 보지 못했는데, 명종 7년(1552)년 서울에 와서 박희정(朴希正)으로부터 『답문록(答問錄)』 2권을 구해 보게 되었다. 이를 손수 전사(傳寫)하고 교감하여 다시 박군에게 돌려보내면서 박군에게 이행할 것을 부탁하였다”는¹⁷⁾ 내용이 있다. 이 내용에 의해 퇴계 이황이 교감하여 수초(手鈔)한 『연평답문록』 전사본이 있고, 박희정이 간행했다면 간행본도 있어야 하는데 전사본과 인출본 모두 전존본이 없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표 3>으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한국 현전본 미확인 고문헌 목록」 중 자부 선집 자료

번호	대표서명	서지사항		관련서발문정보						간략내용	비고
		본서명	저작자	제목	저자	생년	몰년	저작자	본서명		
1	稽古篇	稽古篇	權重經編	稽古篇序	權萬	1688	1749	權萬	江左稿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稽古篇』편의 서지 사항과 차이가 있으며, 부산대 소장은 편찬자 미상으로 되어 있음.

17)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43 ‘延平答問後語’.

“滉讀晦菴先生四書集註, 或問. 見其所述師說之一二. 未嘗不歎其辭義精深, 旨味淵永, 而恨 不得見其全書. 壬子. 來京. 幸與朴君希正相識. 始得所謂答問錄者二卷. 病中因竊窺其首末. 如盲得視. 如渴得飲. 雖未易測其涯涘. 而吾學與禪學. 似同而實異之端. 至是可知. 而涵養本原. 似若得其用力之地矣. 手自傳寫. 讎校其本錄之錯簡. 誤字亦僭爲釐正. 而還之希正. 但以支離頓憊. 精力不逮. 其論語, 春秋等講說之條文多而不切於行者. 或只舉其條而不傳其文. 其在性理等書者. 只云見某書. 或掇入注書. 或挑出上面. 書殊未爲全書. 是爲愧懼耳. 顧是錄也. 東方士子. 罕得見焉. 滉懇囑希正以印行事. 未知其果能否也. 使幸而印行. 士之能知尊敬. 而探究服行者多. 則何患此道之日孤. 而異端之日盛也哉. 嘉靖癸丑陽復日. 滉. 謹書.”

번호	대표서명	서지사항		관련서발문정보						간략내용	비고
		본서명	저작자	제목	저자	생년	몰년	저작자	본서명		
2	衛正新書	衛正新書	洪在龜	衛正新書序	宋秉璋	1836	1905	宋秉璋	淵齋集	遜志 홍재구(1845-1898)가 유학의 도를 밝힌 책.	모덕사 소장 편저자 미상으로 되어 있음
3	唐詩畫意	唐詩畫意	申緯鈔選	唐詩畫意序	徐耕輔	1771		徐耕輔	卯翁集	『唐詩畫意』는 紫霞 申緯가鈔選한 것이다. 연세대학교소장본은 純祖 20년(1820)의 고본으로 완결이다.	국중과 장서각에 편찬자로 되어 있는 紫霞 山人은 申緯이며, 버클대학교본에 趙重弼을 편자로 밝힌 것은 철종 13년(1862)에 安鎭이 증조하고 조중필이 편집한 것을 일컬음.
4	三書講錄	三書講錄	李滉講說/金隆手錄	三書講錄跋	金應祖	1587	1667	金隆	勿巖集	三書는 『家禮』, 『太極圖說』, 『通書』를 말함. 김룡은 퇴계의 문하에 들어가 공부하였는데 퇴계가 이 세 책에 대해 강록한 것을 김룡이 손수 기록한 것임. 발문을 쓴 김응조는 삼서 강록의 간행 필요성을 역설. 가례강록은 물암집 권3, 태극도설강록과 통서강록은 물암집 권4에 각각 수록되어 있음.	『勿巖集』 권1 通書講錄 중
5	贊疑錄	贊疑錄	編者未詳/李震相答錄	贊疑錄跋	李震相	1818	1886	李震相	寒洲集	어느 날 郭鳴遠이 한 책을 꺼내놓았는데, 그 책의 이름이 『贊疑錄』이었다고 함. 이 책의 내용은 모두 理氣心性存養克治의 요점이었다고 함. 그래서 이 진상이 각 조목의 밑에다 글을 지어 화답해주었다고 함.	『寒洲集』 권19 書에 李震相이 답한 내용은 있으나 郭鳴遠의 것은 없음.
6	延平答問錄	延平答問錄	李延平編	延平答問後語	李滉	1501	1570	李滉	退溪集	퇴계는 일찍이 주희의 『四書集註』, 『四書或問』은 보았으나 『四書問答錄』은 보지 못했는데, 王子(명종 7, 1552)년 서울에 와서 朴君希正으로부터 答問錄 2권을 얻어 보게 됨. 이를 손수 傳寫하고 고감하여 다시 박군에게 돌려보냄. 그리고 박군에게 인행할 것을 부탁함. 발문은 嘉靖 癸丑(명종8, 1553)년 작성.	吳健의 『德溪集』 권6에 問目이 있음. 정확한 서명은 『恥齋先生遺稿』 卷1 『與虛寡悔書』를 참조하면, 『延平答問錄』임을 알 수 있음.

3.4 집부 문헌

집부 문헌은 「한국 현전본 미확인 고문헌 목록」 중 현전하는 것이 74종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 자료중 서지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7종만 선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자나 편자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서문과 관련 자료를 통해 저작자를 정확하게 밝힌 사례들이 있다. 1) 「마천별곡(瑪川別曲)」, 2) 「삼일당집(三一堂集)」, 3) 「안재시집(安齋詩集)」 등이다(<표 4> 1-3 참조).

1) 「마천별곡(瑪川別曲)」은 이섭(李涉)이 경종 즉위년(1720)에 안동 마애리 일대를 중심으로 시골의 한미한 처사의 현실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역사흐름에 치열하게 대응하려는 향촌 선비의 모습이 형상화된 가사문학이다. 김양근(金養根)의 「書李處士涉瑪川別曲後」를 통해, 작품의 저자가 이섭이고, 저작시기는 마천(瑪川)이 60세 때인 경종 즉위년(1720)이며, 작품배경은 마천의 10대조의 유희가 있는 마애리 일대임을 알 수 있다.¹⁸⁾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에 저자표시가 없는데 ‘李涉(朝鮮) 著’로 기술해야 한다.

2) 「삼일당집(三一堂集)」은 성로(成輅, 1550-1615)의 시문집이다. 이 문집은 현전하는 문집의 서명은 「석전선생유고(石田先生遺稿)」이며 효종 3년(1652)에 간행한 목판본 2권 1책이 국립중앙도서관(BC古朝45-가36)에 남아 있다. 서문은 이경석(李景奭)과 정두경(鄭斗卿)이 작성하였다. 이경석이 쓴 서문은 그의 문집인 「백헌선생집(白軒先生集)」 권30에 ‘三一堂集序’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서문의 내용에 의하면, 성로(成輅)의 문집이 있었는데, 갑寅년(甲寅年)(광해군 6, 1614)에 모두 불태워 버렸고, 그의 외손자인 조성후(趙成後)가 불타고 남은 시고를 모아서 이경석에게 서문을 받아 편찬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⁹⁾ 서문에 나타나는

18) 김현식, “<마천별곡> 연구,” 『한국문화』 제38집(2006), 11.

19) 李景奭, 『白軒先生集』 卷之30, 三一堂集序.

“余自弱冠。已聞西湖有成處士者。其爲人也。不迹城市。不慕纓弁。惟麴蘖001是嗜。凡有謹愴悲憂。輒於詩焉發之。時從長者。得聞其詩句。蓋有出塵之趣。余益奇之而無由識其面。處士公尋亦乘化去矣。後數十年。余往往遊于西湖之上。未嘗不方沓沙渚。追想其

‘三一堂集’이 ‘石田先生遺稿’로 바뀐 것은 성로의 호가 석전(石田)·삼일당(三一堂)·잠암(潛巖)이어서 그중에 석전을 택하여 문집의 간행시 서명으로 채택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저작사항은 ‘成輅(朝鮮) 著; 趙成後(朝鮮) 編’으로 해야 하고, 주기에 ‘異書名: 三一堂集’을 넣어야 한다.

3) 『안재시집(安齋詩集)』은 성임(成任)의 시문집이다. 『안재시집』의 저자는 성현(成俔)의 『허백당집(虛白堂集)』에 실린 ‘家兄安齋詩集序’에 실린 내용에 의해 알 수 있으며, 경기대가 소장하고 있는 『문안공안재성선생시집(文安公安齋成先生詩集)』(경기K-113630)에는 저작사항이 밝혀져 있지 않는데, ‘成任(朝鮮) 著’로 저작사항을 밝혀야 한다.

둘째, 문집에 들어간 서문이 목록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4) 『매둔집(梅墩集)』, 5) 『박환경문초(朴瓏卿文鈔)』 등이 이에 해당한다(<표 4> 4-5 참조).

4) 『매둔집(梅墩集)』은 유광선(柳廣善, 1616-1684)의 시문집이다. 매둔집은 현재 필사본으로 하버드-옌칭 도서관(Harvard - Yenching Library)에 소장되어 있다. 서문은 1741년에 쓴 민창도(閔昌道)의 서문과 성호 이익(李瀾)의 서문이 모두 본문에 실려 있는데, 성호 이익의 서문이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 목록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추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5) 『박환경문초(朴瓏卿文鈔)』는 일본 텐리대학(天理大學) 이마니시 류 분고(今西龍文庫)에 소장된 문헌이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소장본에는 서발문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정현(尹定鉉)이 쓴 서문이 『침계선생유고(樸溪先生遺稿)』 권5에 실려 있어서 본 책의 편찬과정을 일부 알 수 있을 뿐이다.

셋째 서문을 통해 판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6) 『극성와유고(克省窩遺稿)』가 이에 해당한다(<표 4> 6 참조).

風流。今者其彌甥趙君成後袖一小卷來示之。索余文弁其卷。其言曰。外王父所著述滿一籠。甲寅年間盡焚之。此特蒐輯於散落之餘傳誦之中。百不一二。而恐愈久而泯滅也。將倩人錄板。以爲一家篋衍之藏。… 乃一放達人。而考其內行。則事其偏親。誠禮備至。喪葬祭祀。必敬必慎。眞篤行君子也。其自號曰三一堂者。… 只有殘編。悲夫。”

서·발문을 통해본 미확인 고문헌의 현황과 기존 고서목록의 수정·보완에 관한 소고

『극성와유고(克省窩遺稿)』는 이득수(李得秀)의 시문집이고 이의 서문은 이항노(李恒老)의 『화서집(華西集)』에 실려 있다. 서문에 의하면, 이득수의 막내 동생 택수(宅秀)가 그의 아들 상우(商愚)에게 또한 화제가 난 이후 남은 것을 수습하도록 하여 詩文 약간 편을 얻었고 이를 등사하여 한 편으로 만들고, 여기에 당시의 만퇴(輓誄) 문자를 부록으로 하여 ‘克省窩遺稿’라 하였다.²⁰⁾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은 필사본으로 되어 있는데 서문에 의거하면 ‘傳寫本’으로 정정해야 한다.

넷째, 문집이 단행본으로 간행되지 않고 문집총서에 들어 있어 검색이 되지 않고 서문도 실려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7) 『매은집(梅隱集)』이 이에 해당된다(<표 4> 7 참조).

『매은집(梅隱集)』은 조승수(趙承洙, 1760-1830)가 의리(義理), 연수(淵數), 상수(象數) 등에 관한 글을 비롯하여 그의 유문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 책의 서문은 이원조(李源祚)가 작성하였다. 이 책은 단행본으로 간행되지 않았고, 현존본에는 『풍성세고(豐城世稿)』 권15에 『매은공고(梅隱公稿)』라는 서명으로 실려 있으며 이원조의 서문은 생략되었다. 『풍성세고』는 국립중앙도서관(BA3647-313),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811.082-조현규교), 영남대학교 도서관(古味810.829-풍성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02B-0270), 한국국학진흥원

20) 李恒老, 『華西集』 권 26, 克省窩遺稿序.

“華陽文正公宋先生。繼石潭文成公李先生而作。倡朱夫子之學於湖海之間。湖海士大夫親炙於前而私淑於後者。皆有以聞夫道心全體爲一身之主萬事之本。隨其人資稟功夫而彬彬然有所發明。蓋有洛閩諸子之風焉。克省窩李公。亦私淑之一也。公家自樛軒文康公而下。家學淵源甚正。旁及宗黨。名德輩出。爲國顯聞。公自幼樛染見聞。有志向上。遂從中洲。性潭。濯溪諸先生之門。得聞道體名目爲學大要。聿尋石潭。華陽之緒餘。又其所與坐春立雪而同飲於河者。皆斐然一時之名流也。以故身心日用之間。所存所發。不出於孝仁禮義尊賢尚德之茶飯也。惜乎。邵南之行義。刺史不能薦。天子不聞聲。而季羔顏丁之居喪。或至於過涉。而終闕其天年也。蓋公既沒。而季弟宅秀氏使其胤商愚。又掇拾於回祿之餘。得詩文雜著若干。繕寫成編。附以當時輓誄文字。總名曰克省窩遺稿凡四編。公從子禮愚元履甫猥調弁卷之文於恒老。恒老誠淺陋。且今牀第餘喘。尤何敢泚筆云云也。雖然。恒老竊嘗與元履有壺簪之舊。因得以誦公之言服公之世。甚詳且久。則其義又不敢終辭矣。… 崇禎紀元後四丙寅三月辛酉。碧珍李恒老序。”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표 4>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한국 현전본 미확인 고문헌 목록」 중 집부 선집 자료

번호	대표서명	서지사항		관련서발문정보						간략내용	비고
		본서명	저작자	제목	저자	생년	몰년	저작자	본서명		
1	瑪川別曲	瑪川別曲	李涉	書李處士涉瑪川別曲後	金養根	1734	##	金養根	東塾集	영남대도서관에편저자미상의 동일표제책이 소장. 瑪川別曲 / [著者未詳]. - 筆寫本. -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형태사항 1册(7張): 28.5×19.3 cm 國漢文混用本卷末: 後序	
2	三一堂集	三一堂集	成處士	三一堂集序	李景奭	1595	##	李景奭	白軒集	成處士의 외손자인 趙成後가 그의 문집을 간행하고자 서문을 부탁함. 絶句近體 모두 2백 2십여 수가 수록되어 있음. 成處士의 이름은 찾지 못하였음.	
3	安齋詩集	安齋詩集	成任 著	家兄安齋詩集序	成倪	1439	##	成倪	虛白堂集	성현의 백씨인 성임의 시집에 붙인 서문으로 서문은 성종 20(1489)년 작.	
4	梅墩集	梅墩集	柳梅墩 / 柳廣善 ?	梅墩集序	李漢	1681	##	李漢	星湖全集	문장에만 치증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과 유매돈의 제주 있으나 등용되지 못한 데에 대한 탄식	
5	朴職卿文鈔	朴職卿文鈔	朴珪壽	書朴職卿文鈔後	尹定鉉	1793	##	尹定鉉	樗溪遺稿	서지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 정확히 모르겠음. 박규수의 글을 모은 것인지 아니면 박규수가 뽑은 글을 모은 것인지 모르겠음.	
										일본 이마니시 문고 소장의 『박환재문』 1책이 국립에 소장(國立中央圖書館(古3648-25-310)) 같은 책으로 보임. 이 서후를 통해 본서의 편찬 과정 등을 추적할 수 있을 듯함.	

서·발문을 통해본 미확인 고문헌의 현황과 기존 고서목록의 수정·보완에 관한 소고

번호	대표서명	서지사항		관련서발문정보						간략내용	비고
		본서명	저작자	제목	저자	생년	몰년	저작자	본서명		
6	克省窩遺稿	克省窩遺稿	李得秀	克省窩遺稿序	李恒老	1792	1868	李恒老	華西集	이덕수의 막냇동생 宅秀가 그 아들 商愚에게 토한 화제가 난 이후 남은 것을 수습하도록 하여 詩文 약간 편을 얻었고 이를 謄寫하여 한 편으로 만들고 여기에 당시의 軼談 문자를 부록으로 하여 극성과유고하 하였으니, 모두 四編이라고 하였음. 또한 그의 從子 禮愚가 이항로에게 서문을 부탁하였다고 함.	克省窩遺稿/李得秀(朝鮮)撰:李宅秀筆寫本(稿本) [刊寫地未詳]:[刊寫者未詳], 憲宗1(1835)寫裝8卷4冊:無郭,無絲欄,半葉10行20字註雙行,無版心:31.4×19.4cm 跋:我伯氏克省窩葉...竭力移謄適於青羊(乙未,1835)之歲...始其工而訖于夫之念...合成四遍施蒙協恰(乙未,1835), 端陽日季弟宅秀謹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4-5796)
7	梅隱集	梅隱集	趙承洙	梅隱集序	李源祚	1792	##	李源祚	凝窩先生文集	梅隱先生趙公이지는 義理, 淵數, 象數 등에 관한 글을 비롯하여 그의 유문을 모아놓은 것.	『풍성세고』(국립BA3647-313)8책에 수록된 『매은공고』임. 본서의 단행본은 확인되지 않으며, 풍성세고본에는 이원조의 서문이 누락. 이원조는 본서의 저자 조승수의 묘갈명을 짓기도 하였음. 기존 목록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음.

4. 결론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경부 문헌 15종을 살펴보았다. 첫째, 한원진(韓元震)의 『거관록(居觀錄)』 등 11종은 단행본으로 존재하지 않고 저작자들의 문집에 실려 있으며, 서문은 저작자가 직접 쓰거나 다른 사람들이 쓴 경우가 있다. 이들 서적이 모두 현전본 미확인 본으로 처리된 가장 큰 이유는 저작자들의 문집에 실려 있는 개개의 고문헌을 찾을 수 있도록 국내 각 기관의 고문헌 DB의 검색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에 연유한다. 둘째, 이형상(李衡祥)의 『가례편고(家禮便考)』는 『병와전서(瓶

窩全書)』에 실린 채제공(蔡濟恭)의 서문에 의해 책의 간행경위를 알 수 있다. 셋째, 서문을 통해 저작자를 밝힌 경우를 보면, 『역통(易統)』은 이만부(李滿敷)의 저서임을 알 수 있었고, 『예기정화(禮記精華)』는 저작자가 ‘鄭弘溟(朝鮮)...等鈔選; 李世白(朝鮮) 箋註’이고, 판본이 ‘傳寫本’임을 밝힐 수 있었으며, 『변례집설(變禮集說)』은 권상정(權尙精)이 편자임을 찾아낸 경우에 해당한다.

2) 사부 문헌의 경우는 58종중 15종을 선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서문을 통해 저작자와 편자를 밝힌 경우는 8종인데 서명과 저작자를 함께 제시해보면, 『瓊林聞喜錄 / 奎章閣 奉命編』, 『廣孝錄 / 洪啓禧(朝鮮) 奉命編』, 『同苦錄 / 沈淨如(朝鮮) 編』, 『銘心錄 / 朴淳(朝鮮) 編』, 『君臣言志錄 / 蔡萬元(朝鮮) 編』, 『靈光金氏四孝錄 / 金尙澈(朝鮮) 編』, 『遂初錄 / 李敦宇(朝鮮) 編; 李裕元(朝鮮) 增編』, 『癸未記事 / 李廷馨(朝鮮) 著』 등이다. 둘째, 우성전(禹性傳)의 『계갑일록(癸甲日錄)』, 우복룡(禹伏龍)의 『동계잡록(東溪雜錄)』, 김인후(金麟厚)의 『하서언행술(河西言行述)』은 김려(金鑣)의 발문을 통해 편찬 및 간행경위를 알 수 있다. 셋째, 『역대연표(歷代年表)』는 서거정(徐居正)의 자서(自序)와 강희맹(姜希孟), 이승소(李承召)의 서문이 남아 있어 저작자 및 편찬경위를 알 수 있다. 저작자는 ‘徐居正(朝鮮) 著’로 기술해야 한다. 넷째, 이존중(李存中)의 『국조명신록(國朝名臣錄)』은 김려의 『題國朝名臣錄卷後』에 의해 판본이 ‘傳寫本’임을 알 수 있다.

3) 자부 문헌은 21종중 6종을 선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서문을 통해 저작자와 편자를 밝힌 것은 3종인데 서명과 저작자를 함께 제시해보면, 『稽古篇 / 權重經(朝鮮) 編』, 『衛正新書 / 洪在龜(朝鮮) 編』, 『唐詩畫意 / 申緯(朝鮮) 鈔選(純祖 20년(1820)본)』 또는 『唐詩畫意 / 申緯(朝鮮) 鈔選; 趙重弼(朝鮮) 編; 安鎬(朝鮮) 重鈔(철종 13년(1862)본)』이다. 둘째, 저작자의 역할어를 기술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 2종인데, 『三書講錄 / 李滉(朝鮮) 講說; 金隆(朝鮮) 手錄』, 『贊疑錄 / [編者未詳]; 李震相(朝鮮) 答錄』이다. 셋째, 서문에 의해 전사본과 인출본에 대한 판본내용을 알 수 있는데, 퇴계 이황이 교감하여 수초(手鈔)한 『연평답문록(延平答問錄)』은 전사본이 있고, 박희정이 간행했다면 간행본도 있어야 하는데 전사본과 인출본 모두 전존본이 없다.

서·발문을 통해본 미확인 고문헌의 현황과 기존 고서목록의 수정·보완에 관한 소고

4) 집부 문헌 74종중 7종을 선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서문을 통해 저작자와 편자를 밝힌 것은 3종인데 서명과 저작자를 함께 제시해보면, ‘瑪川別曲 / 李涉(朝鮮) 著’, ‘三一堂集 / 成輅(朝鮮) 著; 趙成後(朝鮮) 編’이다. 둘째, 문집에 들어간 서문이 목록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매둔집(梅墩集)』은 성호 이익의 서문이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목록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추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박환경문초(朴瓚卿文鈔)』는 윤정현(尹定鉉)이 쓴 서문이 『침계선생유고(岑溪先生遺稿)』 권5에 실려 있어서 본 책의 편찬과정을 일부 알 수 있을 뿐이다. 셋째, 서문을 통해 판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득수(李得秀)의 『극성와유고(克省窩遺稿)』는 서문에 의해 ‘傳寫本’임을 알 수 있다. 넷째, 문집이 단행본으로 간행되지 않고 문집총서에 들어 있어 검색이 되지 않고 서문도 실려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조승수(趙承洙)의 『매은집(梅隱集)』은 단행본으로 간행되지 않았고, 현전본에는 『풍성세고(豊城世稿)』 권15에 『매은공고(梅隱公稿)』라는 서명으로 실려 있으며, 이원조(李源祚)의 서문은 생략되었다.

<참고문헌>

강순애. “서·발문을 통해 본 고문헌의 현황과 한국서발류자료정보시스템 구축의 의의.” 『書誌學研究』 42집(2009). 75-10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 序跋類 자료 총목록』. 2007년도 국학기초자료사업 결과물 I. 동연구원, 200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 현전본 미확인 고문헌 목록』. 2007년도 국학기초자료사업 결과물 II. 동연구원, 200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 고문헌의 지식 계보학적 연구자원 해제집(삼국·고려시대편)』. 2008년도 국학기초자료사업결과물. 동연구원, 2008.

금지아. “申緯 編選 《唐詩畫意》 중의 杜詩, 그 美學的 屬性.” 『열상고전연구』 18집(2003).

김광년. “한국고문헌의 지식 계보학적 연구자원 구축 사업경과에 대하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년도 국학기초자료사업 학술대회』 (2011. 12. 16). 1-14.

金鑣. 『溱庭遺藁』 卷11 題癸未記事卷後.

金鑣. 『溱庭遺藁』 卷11 題癸甲日錄卷後.

金鑣. 『溱庭遺藁』 卷11 題東溪雜錄卷後.

金鑣. 『溱庭遺藁』 卷11 題河西言行述卷後.

金鑣(朝鮮)編. 『寒臯觀外史』 권56 題河西言行述卷後.

김현식. “<마천별곡> 연구.” 『한국문화』 제38집(2006).

朴淳 著. 『思菴先生文集』 卷4 銘心錄序.

李景奭. 『白軒先生集』 卷之30 三一堂集序.

李萬敷 著. 『息山先生文集』 권17 君臣言志錄序.

李裕元. 『嘉梧藁略』 冊12 遂初錄序.

李恒老. 『華西集』 권26 克省窩遺稿序.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43 延平答問後語.

崔錫恒 著. 『損窩先生遺稿』 卷22 雜著 同苦錄引.

洪直弼. 『梅山先生文集』 권29 題金氏四孝錄後.